

## 새로운 성장분야 지원을 위한 산업혁신투자기구 출범

- 관민펀드인 현행 산업혁신기구를 개조한 산업혁신투자기구(JIC)가 9월25일 발족됨
- 새로운 기구는 기존 혁신기구와 같이 기업 등에 대한 직접 투자는 하지 않고 산하 펀드에 투자를 담당시키고 그 펀드를 관리만 함
- 새로운 기구는 이번 개조로 회사를 분할하고, 구 혁신기구는 투자한 안건의 관리·회수를 맡음
- 새로운 혁신투자기구가 사령탑이 되어 난립이라는 비판이 거뻐던 기존 관민펀드를 집약시킬 계획임
- 기업에 대한 새로운 기구의 투자기준은 ①소사이어티 5.0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, ②유니콘벤처의 창출, ③지방의 장래성 있는 기술활용, ④기존사업의 산업 및 조직의 틀을 넘는 사업재편 등
- 새로운 기구는 기존 혁신기구에 비하여 적극적인 산업·기업구조조정에 가까운 방향으로의 운용을 지향하고 있음

### □ 새로운 산업혁신투자기구 발족

- 관민펀드인 현행 산업혁신기구를 개조한 산업혁신투자기구(JIC)가 9월25일 발족됨
- 새로운 기구는 일본 최대급 투자회사로서, 정부보증한도 약 2조 엔에 현행 산업혁신기구의 출자를 회수한 자금, 민간자금을 끌어들이
  - 동 기구는 자회사로서 경제산업성의 인가를 얻은 펀드를 설립, 자회사의 펀드 등을 통하여 기업에 출자했으며 2019년 3월까지 인가펀드를 다수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기업에의 투자기준은 ①소사이어티 5.0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, ②유니콘벤처의 창출, ③지방의 장래성있는 기술활용, ④기존사업의 산업 및 조직의 틀을 넘는 사업재편 등
  - 구체적인 분야로는 의료, AI, 바이오, 모든 모노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IoT 등을 제시

### □ 산업혁신투자기구에 대한 경제산업성의 투자확대

- 일본정부는 새로운 펀드 「산업혁신투자기구」에 추가 출자할 예정임
  -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도 요구예산에서 이제까지 투입한 2,860억 엔에 더하여 1,600억 엔을 늘릴 방침을 결정함
- 기존 혁신기구는 소형안건에서의 철수나 기업구제 선택이 농후하다는 등의 비판에 직면해왔음

- 새로운 펀드는 인공지능(AI)이나 데이터활용 등 성장분야에 효과적인 리스크머니 공급을 확충할 계획임
- 새로운 기구는 2018년 5월에 개정 산업경쟁력강화법이 통과되어 설치기한이 2034년 3월말까지 연장하는데 맞추어 경영CEO를 포함하여 체제를 일신하게 됨
- 재정투융자에 의한 정부의 증자는 재무성도 2019년도 예산편성에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경제산업성과 협의함
- 실현되면 2013년 추가경정예산으로 200억 엔을 투입한 이래 처음임

## □ 투자결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강화

- 기존 혁신기구는 경영재건중인 저팬디스 플레이(JDI) 등 고경에 빠진 기업의 구제를 받아들이는 안전이 많아 비판을 받았음
- 기구 주도로 투자한 벤처 안전 등으로는 성과가 나지 않아 철수하는 안전도 나오고 있음
- 2018년 5월의 법 개정에서는 투자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큰 투자의 방침결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화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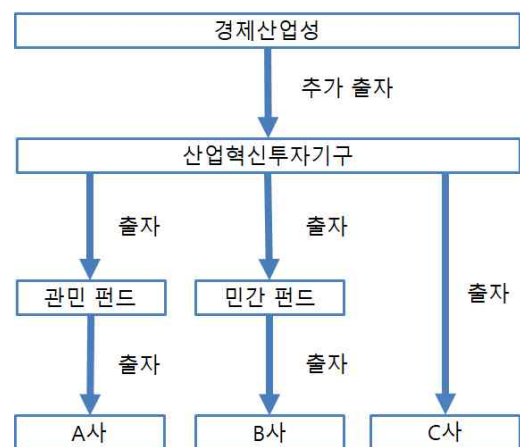
## □ 새로운 투자혁신기구가 기존 관민펀드를 통합

- 새로운 혁신기구는 기존 혁신기구와 같이 기업 등에 대한 직접 투자는 하지 않고 산하 펀드에 투자를 담당시키고 새로운 기구는 그 펀드를 관리만 함
- 혁신기구는 이번 개조로 회사를 분할하고, 구 혁신기구는 투자한 안전의 관리·회수를 맡음
- 새로운 혁신투자기구가 사령탑이 되어 난립이라는 비판이 거뒀던 기존 관민펀드를 집약시킬 계획임
- 낡은 산업정책의 상징인 관민펀드의 대다수가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위세를 떨치고 있음
- 2018년도 재정투융자계획에서는 6개의 관민펀드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
-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(쿨재팬기구)등을 산하에 두는 한편, 지원의 중복을 피하거나 감정력을 높여 효과적인 자금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

## □ AI개발과 인재육성도 추진

- 혁신기구에 대한 증자를 포함하여 경제산업성은 2019년도 개산요구에서 2018년도 당초 예산대비 10%증가한 1조 4,085억 엔을 계상

<그림> 새로운 혁신기구의 기업 지원 스킴  
혁신기구의 기업 지원 체제




- 무현금결제의 보급을 위해 QR코드의 표준화나 관련 단말기의 도입비용의 보조에 새로이 30억 엔을 충당하고, 제조현장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활용한 AI개발과 인재육성 등도 추진함

#### □ 국민공동으로 차세대 원자로 개발

- 에너지 분야에서는 새로이 혁신적인 원자력기술 개발에 10억엔을 투입할 방침임
  - 경제산업성은 2018년도 중에나 대형 전력업체나 원자로 메이커 등이 참가하는 협의체를 만들어, 국민공동으로 차세대원자로의 개발을 검토
  -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개축 등을 시야에 두고 관계 예산의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2019년도 세제개정요망에서는 개인사업주의 사업인수를 촉진하기 위해 「개인판사업 승계세제」를 창설할 방침을 명기하고, 어린이들이 사업을 인수할 때 소요되는 상속세의 경감을 검토하고 있음
  - 경영자가 개인으로 보유하는 공작기계 등의 설비 외에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을 경감 해주도록 요구함

#### □ 시사점

- 기존 산업혁신기구와 새로운 산업혁신투자기구는 다같이 1990년대 제정된 산업혁신법을 모태로 하고 2013년 아베정권 출범후 실시된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의해 강화된 구조조정 지원기구임
- 산업혁신기구는 원래 OECD가 권고하는 적극적인 산업구조조정을 전제로 미래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었음
- 그러나 대표적인 재팬 디스플레이(JDI)의 사례에서와 같이 기업구제를 위한 지원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산업구조조정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운용되었음
- 이번 발족된 산업혁신투자기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본래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개조되었음
- 더욱이 WTO체제하에서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, 보조금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은 허용 되지 않고 있는데, 산업혁신법 제정당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음
- 비록 산업경쟁력강화법 및 개정 산업경쟁력강화법에 의거한 산업혁신투자기구에 의한 지원이 특정성과 직접적인 지원을 배제하고 있기는 하나, 일정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국민펀드에 대한 출자를 통한 지원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관해서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함. 

<참고자료>

일본경제신문(2018.8.29./9.26)